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예비자 교리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첫째 토요일 오전 11시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祝 외딴교우 세례식 및 첫 영성체식

- 일 시 : 7월 30일(토) 14:00
- 장 소 : 본당 대성전
- ※ 신자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알 림

- 7월 20(수) 11시 경로당 웰레미사가 있습니다.
- 7월호부터 매일 미사 책 판매가격이 소(소) 1,500원, 대(대)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8월부터 유아세례 및 태중의 아기 축복 일정 변경 안내
 - 유아세례 :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1시
 - 태중아기 축복 :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울뜨레아 모임	7/17(일), 11시 40분	강 당

● 청소년부

- 가족신앙학교
 - 대상자 : 유·초등부
 - 일 시 : 7월 23일(토) ~ 24일(일)
 - 장 소 : 내리 살레시오 피정 센터
 - 문 의 : 권영근 엘리사벳 010-5490-5923
-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 일 시 : 8월 5일(금) ~ 7일(일)
 - 장 소 : 문경 다락골
 - 문 의 : 김덕리 라파엘 010-4463-4260

제 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사진 공모

1. 응모 자격 : 본당 교적 신자 누구나
2. 응모 주제 : 조부모와 손자녀가 꼭 함께한 행복한 모습
3. 작품 규격 : 스마트폰/디지털카메라/흑백/컬러 관계없음
(용량이 클수록 좋으며 원본 파일로 신청)
4. 출 품 수 : 1인 최대 10점 이내
5. 접수 기간 : 2022년 7월 1일(금)~7월 31일(일)
6. 접 수 처 : 본당 사무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7/24)’ 전대사 안내

1. 고해성사
2. 영성체
3.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 ‘노인들을 위해’
4. 실천사항 중 선택 1
 - ① 미사 참여
 -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 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자비의 활동하기

● 다음 주일(7/2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월 시작 예정	청 소	1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7월 6일 ~ 7월 12일)

• 교 무 금		7,075,000원
• 주일헌금		4,599,600원
• 시설헌금	윤낭기10만원	
• 감사헌금	김수자10만원	장정차30만원 김태수10만원
	박승환50만원	엄영수10만원 김순애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7/17	이인옥	심재순	도현만 안상록 김명선
7/24	권태희	신종구	김진수 장익근 정홍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7/17	오광운	장인홍	김광수 김영배	이화봉
7/24	최영만	이화봉	박승환	이운영 이화봉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정치적 사랑의 활동

186. 이른바 ‘우려나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애덕에서 직접 흘러나와 개인들과 민족들을 향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또한 ‘명령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더 건전한 제도, 더 공정한 규칙, 더 견실한 조직들을 만들도록 이끄는 애덕의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자기 이웃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고자 애쓰는 사랑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애덕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알지 못하여도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된 사회적 조건들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애덕입니다. 누군가 연로한 어르신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돕는다면, 이는 탁월한 애덕의 행동입니다. 한편 정치인은 그 강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것 또한 애덕입니다. 어떤 이는 먹을 것을 주어 다른 이를 돕는다면, 정치인은 그를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자신의 정치 활동을 드높이는 숭고한 형태의 애덕을 실천합니다.

사랑의 희생

187. 정치의 정신에서 핵심이 되는 이 애덕은 언제나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이들을 위한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이 사랑이 있습니다. 애덕으로 달라진 시선은 다른 이들의 존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애덕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가난한 이들의 무한한 존엄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로써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 안에서 존중받고, 사회에 참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이 시선은 정치의 진정한 정신에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할 때에 영혼 없는 실용주의의 길들과는 다른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들을 달래어 온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데에만 급급한 억제 전략을 장려한다면 빈곤의 걸림돌은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이타적인 활동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그 이면에 다른 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표현과 사회 참여의 새로운 통로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이 여정에 이바지하여 모든 인간이 각자 자신의 미래를 일구어 가는 장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연대성의 원리와 분리될 수 없는 보조성의 원리가 지닌 가치가 드러납니다.